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등록 교우: 박성근, 장영자, 김영수, 박새롬
2. 오늘 점심식사 후에 '임직자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3. 그동안 동파로 인해 사용이 불편했던 화장실이 보수되었습니다.
4. 다음 주일은 목장주일 &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목자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권용기 집사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목장주일로 합니다.
6. '몽골 단기선교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교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정은 7월 16일(월)~21일(토)까지 진행됩니다. 1차 모집마감일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은 개별적으로 담임목사님께 알려주세요.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2월 4일	2월 11일	2월 18일	2월 25일
예배기도(오전)	신태식 장로	유중열 집사	김윤식 집사	권용기 집사
예배기도(오후)	오효근 집사	정진숙 권사	설연휴	목장주일
주일식사담당	햄시바목장 (김금옥 권사)	양떼목장 (황희용 권사)	늬바목장 (유숙정 권사)	로템목장 (정진숙 권사)
토요일청소	둘로스목장	주사랑목장	에덴목장	갈렘목장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새롭게 임직을 받는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준비되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함안)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13번(시편 23편) 다같이
*경배찬송	19장(통 44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91장(통 91장) 다같이
대표기도	김윤식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요 3:1-10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삶을 바꾸는 훈련'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단
의
말씀
을
읽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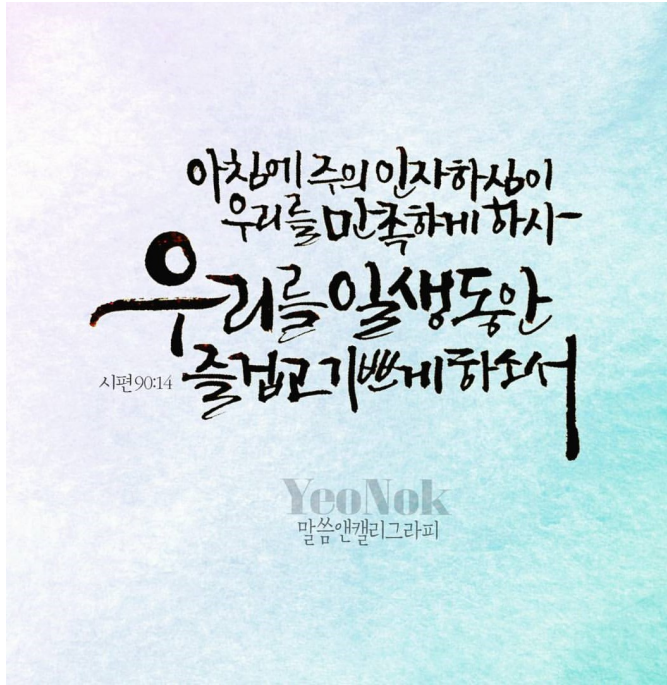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어라

요 15장 7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로 인해 쉽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요 6:16-21 '두려워 말라'(4)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1)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시편 묵상 시 67:1-7 '베루시는 하나님의 은혜'(2)-(6)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호두과자에는 호두가 없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좀 이른 귀성길에 올랐다. 백두대간을 따라 내려가다 경북 선산에 닿았다. 정확히는 선산휴게소에 들렀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탁 트인 주변 절경으로 콧구멍이 다 시원하다. 답답하고 번잡스러운 회색빛 도회지를 떠날 때면 동심으로 돌아간 탓일까 유독 부지런을 떤다. 출발지인 경기도 남양주에서 목적지인 경남 함안 고향집까지는 약 400Km, 천릿길이다. 대략 240Km를 달렸으니 160Km 정도 남은 셈이다. 노후 된 차량이라 목적지까지 3번 정도 휴게소에 들러야 하는데 두 번째 휴게소가 선산휴게소였다. 휴게소에 들릴 때면 이곳 저곳을 기웃거렸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단연 먹을거리다. '하나라도 더 먹어야지.' 끼니엔 때가 없다. 차갑고 신선한 공기에 소화제라도 탄 걸까. 먹고 뒤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다.

잡은 여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 년에 두어 번 정도 장거리 여행을 하다보면 들리는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다. 물론 화장실 가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으레 호두과자를 사먹곤 했다. 이날도 평소처럼 몇 가지 간식거리를, 그리고 맨 나중에 호두과자를 사고서는 차로 돌아왔다. 사온 것들 가운데 당연히 맨 먼저 손이 가는 것이 호두과자였다. 하나를 먹었는데 평소에 먹는 맛이 아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를 더 먹어보았지만 더 이상 땡기지를 않는다. 이미 식어서 그런지 비릿한 맛에 정작 있어야 할 호두가 호두과자에 없다. 여기만 이럴까. 그렇지 않다. 가평휴게소며, 심지어 대성리만 해도 얼마나 맛있는 호두과자를 파는데. 호두를 넣으면 원가가 비싸져서 그런가, 아니면 처음부터 호두 없는 호두과자를 팔고자 했는가.

분명 간식코너의 메뉴판에는 '맛있는 호두과자'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라는 기대감으로 샀는데 실망스럽다. 아내도 아이들도 한두 개 먹어보고는 더 이상 집어 들지를 않는다. 다시 차에 올라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참이나 해보았다. "호두 없는 호두과자처럼 우리 인생도 반드시 있어야 할 알맹이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그 알맹이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것이다. 예수 없는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예수 있는 크리스천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몫이다. 후자면 세상도 귀하게 여길 것이다. 호두과자 없는 호두를 먹으면서 새삼스레 생각했다. 갈수록 먹는 게 편리해지는 시대이지만, 변화의 속도와 품질은 반비례할 수도 있다고 말이다.

Written by 허영진